김용민브리핑

2016년 11월 10일 목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불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아름다운재단
02-766-1004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알싸한홍어
1599-6456, 010-9384-7970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정성농장홍삼
041-754-0884, 010-9754-6972
jeongseongfarm.com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비타샵
031-783-6007
vitashop.co.kr

예쁜 구렁이 똥! 장 청소는
미궁장사랑
070-4115-0365, 010-2892-0365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수아비스화장품
1688-9113, 031-717-1613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풍무양고기
031-902-9292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매트리스엠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내피알
032-519-4800
nepr.co.kr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킨텍스점
facebook.com/tartfarm13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이담채김치
1544-4586
edamche.com

3D 실물 피규어 수공예품 제작
메이드바이어스
010-5633-6036
madebyus.co.kr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전창걸의새싹땅콩차
070-8635-1288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좋은사람과플라워
1566-0263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월7천원운전자보험카페
02-849-9730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와우전복
010-2443-0818
wowabalone.modoo.at

한우 사골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연지연곰탕
010-7252-1114, 031-989-9968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트럼프 당선사태의 해법은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어수선한 정국 속에 미국 대선이 메가톤급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혁명적인 변화를 원한다며 선택한 것이 트럼프다?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선택은 명백한 미국인의 오판입니다.
경제성장 신화에 젖어 철학도 능력도 결여된 독재자 혈육에게 국가권력을 맡겼던 4년 전부터, 아니 경제성장 신화에 젖어 도덕성이 결여된 희대의 사기꾼에게 국가권력을 맡겼던 9년 전부터 혹독하게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이번 결과에 실소를 금할 수 없을 겁니다.
확신 있게 예견합니다. 미국을 미국민만을 위한 나라로 바꾸겠다며 혐오와 차별을 앞세워 당선된 부패한 트럼프. 이 사람의 당선으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며 위세를 떨었던 초강대국의 지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백만 믿고 등 뒤에서 형님 형님하던 한국의 운명도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처럼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트럼프는 "그건 참 끔찍한 일이다. 잘 해보라. 행운을 빈다"고 답한 바 있었지요.
대한민국은 이제 정치부터 경제, 외교, 국방 전 분야에 걸쳐 미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악명 높은 독재자이건만 어느 한 편에 기울지 않아 미국과 중국의 추파를 받는 필리핀 두테르테처럼 확고한 정체성과 선명한 노선을 갖고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입지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사주권을 미국에게 상납한 이 기막힌 현실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망령처럼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박근혜 씨가 국정운영을 잘못했으니 내치는 국회가 정한 총리에게 맡기고 박근혜 씨는 외치에만 전념하게 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 말입니다. 외치는 아무나 해도 된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지요.
트럼프 당선은 국난의 상황입니다. 미국을 추종하고 의존하는 것 말고는 전략이 없어 무능한데다 부정부패 스캔들로 이미 국민적 탄핵에 봉착한 박근혜 씨는 헌법적 축출이 불가피합니다. 요컨대 즉각 하야, 조기 대선만이 답입니다.
시민이 완성합시다. 11월 12일 토요일에 많이 모이면 판을 흔들 수 있습니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1월 10일(목) 1부 | 트럼프 당선 초비상…박근혜 시급히 하야해야

[오프닝] 세계경찰 미국 신화 끝나…외교 격변기 朴 조속사퇴해야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안팎 불신 '박근혜 조폭 정권'에 외치 맡기자고? 외치가 장난인가!
-"최순실씨에게 보여주라" 정호성 휴대전화에 박근혜 목소리 확인
-우병우, 차은택 비리 캐고 후속조치 안해…롯데 수사 누설도 했나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원장 존재 급부상 "전문의도 아닌 그가 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집회 효과? 편의점 양초 판매량 급증
[뉴스듣기능력평가] 트럼프 당선 적중해 예언가 된 영화감독 관련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집중분석] 트럼프 당선은 한국을 어떻게 암울하게 만들 것인가
-내우의 박근혜에게 외환 상태인 트럼프 시대 외교 맡길 수 있을까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철도파업 끝장협상 자정 종료…결렬이면 책임은 온전히 사측 몫!
-트럼프 당선, 침몰하는 신자유주의 : 朴 퇴진은 선택 아닌 필수!
[공화국 논평] 박 동지 더 위태롭게 만든 힐러리에 대한 중대 조치

충격! 트럼프시대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11.10 국제뉴스의맥 원고

-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은 '기득권에 분노한 백인 중하위층의 몰표' 때문이라는 분석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결과가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세계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엄청난지는, 최근에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잘 보여줬습니다.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 하에, 전세계를 벌집처럼 쑤셔 놨었죠. 그래서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나타나는 IS의 발호 같은 게, 거슬러 올라가면 부시 시절 네오콘들의 강경 대외정책에 뿌리가 있습니다. 한반도도 마찬가지구요...그만큼 미국 대통령의 대외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투표용지 반장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 트럼프 시대에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걸 까요?

미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를 펴면서, 국제무역구조, 그리고 경제구조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전체적으로 설익었고 짜임새가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보호무역을 하겠다는 입장은 가장 일관됐었고, 바로 그 공약으로 앵그리 화이트들의 표를 끌어 모았기 때문에, 4년 뒤에 재선을 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보호무역 정책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의 의회 비준 신청을 거둬드리는 게 우선 꼽힙니다. TPP는 환태평양 국가들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FTA이고, 참여국가들 중에서 미국과 일본의 경제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사실상 미일FTA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FTA를 맺어와서 미국의 공장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갔고, 그래서 백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TPP를 무산시키려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 나프타라고 불리는 북미자유무역협정, 미국-캐나다-멕시코 사이의 FTA를 비롯해서, 한미 FTA 같은 것도 미국에 유리하게 다시 뜯어 고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 TPP는 중국을 포위하는 경제동맹 같은 성격도 있는데...그걸 안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좋은 것 아닌가요?

TPP를 안 한다는 것 하나만 볼 때는 중국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일거에 없애 버릴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엄청난 관세를 매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현실이 된다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입은 약 87%가 감소할 거라고, 일본계 다이와증권이 전망한 바 있습니다.

- 45%가 아니라 10%만 관세를 더 매겨도 충격파가 적지 않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만약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면, 미국 최대의 채권국인 중국이 자기들의 돈을 회수하는 쪽으로 가고, 또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미국 입장에서도 섣불리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선거기간에 약속을 세게 한 거니까, 어느 정도는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약속대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거나, 지적재산권 문제 같은 걸로 시비를 걸면,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 여파는 중국과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 한국의 산업도 물론 영향을 받겠죠?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타격을 크게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물건 중에는, 한국에서 수입한 중간재를 조립해서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밀어붙여서 미중관계가 나빠지고, 중국의 대미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한국의 중간재 수출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FTA를 재검토해서 직접적으로 받는 피해가 생길 텐데, 그것 보다, 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 품목들이 타격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 보호무역주의가 가져올 연쇄적인 효과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미국의 무역정책은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유럽, 중남미와의 교역도 손을 볼 거기 때문에, 국제질서가 더 위태로워지지 않겠냐, 하는 어두운 전망이 계속 나옵니다.

-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미 FTA 손 보겠다는 것도 있었지만,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한국이 다 내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가장 눈에 띄었죠?

트럼프는 한국, 일본, 사우디 같은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력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는 두 나라가 반반씩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내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백인표를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재선을 하려면, 성과를 반드시 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몇 년도까지 유효하죠?

내후년, 2018년까지 얼마를 낼지는 이미 조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건, 끝까지 버티건, 현재 정권에서 다시 이 문제를 협상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다음 정권에 대해 분담금을 더 내라고 밀어붙일 텐데요, 미국 의존심리가 강한 집단들이 '순순히 받자'고 할 게 뻔합니다. 그러면서 협상을 세게 해야 한다거나, 인상 요구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집단에 대해 종북이다 뭐다 공격을 할 거구요,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조선일보 같은 데서 그 문제로 정권과의 싸움을 걸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은 트럼프 손에 쥐어지는 건가요?

전작권 환수 약속을 이명박 정부에서 한번 연기하고,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결과로, 한국군 전작권의 최종 소재는 트럼프의 백악관이 됐습니다.

- 트럼프가 '한반도 사드는 필요없다'는 사드 무용론을 펴기도 하지 않았나요?

그런 얘기를 살짝 하긴 했는데, 일관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한테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는 기조의 연장선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려면 한국이 비용을 대부분 대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군산복합체들이 트럼프를 강하게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실상 붕괴된 박근혜 정권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겠네요?

청와대가 어제 NSC도 열면서 보여주기 행보를 했는데, 트럼프 시대가 열릴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부를 세워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어제 트럼프 당선에 대한 청와대나 외교부의 반응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반응을 보면, 자기들한테 뭐가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안 상태에서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냥 '한미동맹 더 강하게 하자'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반응만을 내놨습니다. 국정 붕괴 상태라는 게 그런 데서도 드러나는 건데....국제정세 급변기에 박근혜 정권이 계속 버틴다는 건, 여러 모로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뉴스의 맥은 매일 1부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충격의 트럼프 당선, 파장 예고

한겨레 MD 무용론 밝힌 트럼프 "사드는요? "

예상을 뒤엎고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 관계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트럼프 당선자는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한국이 더 내지 않으면 철군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의 절반만 부담한다는 지적에 "100%는 왜 안되냐"고 반문한 적이 있다. 또한 한·미 양국 정부가 속도를 높여온 '주한미군 사드 배치' 의 재검토 여부도 주목 대상이다. 트럼프는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미사일방어시스템인 MD가 실질적으로 쓸모없다며 무용론을 주장해왔다.

한겨레 "조폭 정권에 외치 맡길 수 없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외교 정세가 급변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을 한겨레 오태규 논설위원실장의 칼럼을 통해 살펴보자

"청와대는 내치는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나 외교·안보 등 외치만 맡겠다고 한다. 하지만 내치와 외치는 분리할 수 없다. 또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지금 세계와 한반도의 정세는 급변할 것이 예상된다. 내치보다 외치가 훨씬 중요한 시점이다. 외치를 잘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단순명쾌한 사실도 모르는 모양이다. 박 대통령은 내치의 실패를 자인한 이상 외치도 할 수 없고, 따라서 내·외치를 모두 할 수 없게 된 만큼 물러나는 것이 순리다. "

검찰, 이래도 박근혜 수사 안하나

朝鮮日報 朴이 직접 지시 "崔에게 보여주라"

대통령 박근혜 씨가 "자료를 최순실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들으라" 이렇게 말한 녹음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찾은 것이다. 검찰이 박근혜 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을 제시하자 정호성 전 비서관은 기밀 누설 혐의를 인정했다. "박근혜 씨의 지시로 최순실에게 문건을 전달한 게 맞다"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이다. 또한 청와대 내부의 사이버 보안 등을 총괄하는 직책은 이재만 전 청와대비서관이 맡고 있었다. 이재만 전 비서관 역시 정호성 전 비서관의 '문건 유출'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민일보 안봉근·이재만도 문서유출에 가담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문건 유출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자 검찰은 이재만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두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안봉근 전 비서관 역시 최순실이 청와대 관저를 드나들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이 확보한 최순실의 태블릿 PC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 이재만 전 비서관이 문서 작성 아이디를 공유한 흔적이 발견됐다.

서울신문 비선모임이 '논현동 청와대 회의'?

최순실은 자신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대통령 보고자료'를 놓고 회의를 했다. 이 회의는 이른바 '논현동 청와대 회의'로 불렸다. 이 모임을 위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30㎝가량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매번 들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대외비 문서 등을 외부로 빼낸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그런데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논현동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재만 전 비서관 역시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와 안종범의 연결고리

東亞日報 禹, 안종범과 차은택 문제로 갈등빚어

대통령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차은택에 대한 내사를 벌여 구체적인 비위 단서를 적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민정수석실이 차은택을 내사하기 시작하면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이에 긴장 기류가 조성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미르재단 등으로 차은택과 깊이 연관됐기 때문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차은택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만약 대통령 박근혜 씨가 이를 보고받고도 묵살했다면 박근혜 씨의 형사적 책임이 무거워진다.

국민일보 안종범, 롯데에 돈 돌려주라 지시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70억원을 받아냈다가 검찰의 롯데 압수수색 하루 전날 되돌려줬다. K스포츠 재단의 관계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롯데에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과 반환에 모두 개입한 셈이다. 검찰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민정수석실로부터 롯데 수사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을 개연성을 수사하고 있다.

노종면 김용민 정상근 국민TV 토요일 생중계

최순실의 문어발 경영

한겨레 '플레이그라운드'도 최순실이 실소유주

차은택의 회사로 알려졌던 플레이그라운드의 실소유주가 최순실로 드러났다. 플레이그라운드의 재무이사를 지낸 장순호씨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이다. 장순호씨는 최순실과 30년 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다. 그에 증언에 따르면 최순실이 플레이그라운드의 일감을 직접 따왔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채용과 급여 수준을 결정했다고 한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최순실의 후광을 등에 업고 일감을 쓸어담았다. 설립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대통령 해외순방 문화사업을 싹쓸이했으며 대기업 광고도 대거 수주했다

東亞日報 평창올림픽에 한식세계화 연계한 이유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한식세계화 사업을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한식세계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해오던 사업이었다. 잘 운영하던 사업에 왜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정책 변화는 최순실과 조카 장시호가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각종 이권사업을 벌이던 시기와 절묘하게 맞물려 있다. 최순실 소유의 '더블루케이'는 평창 겨울올림픽의 개·폐막식장 공사 수주를 시도했다. 또한 장시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사업을 장악하기 위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스포츠마케팅 회사인 더스포츠엠을 세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계일보 최순실, 영종도 카지노도 개입 의혹

최순실이 영종도 카지노 사업에도 손을 댔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영종도 카지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그런데 영종도 카지노 사업에 뛰어들었던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최순실과 고영태 등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외국인전용 카지노 업체인 그랜드코리아레저는 현재 사업을 철회한 상태다. 또한 영종도 카지노 사업 과정에서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최순실과 접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성형외과 의사도 국정농단

중앙일보 崔 단골 성형외과 원장도 특혜 받아

최순실, 정유라가 단골로 다니던 유명 성형외과가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성형외과 원장 김 모 씨와 이 병원에서 설립한 화장품 회사 대표 박 모 씨가 대통령 해외 순방에 여러 차례 동행했던 것이다. 또한 해당 성형외과의 해외 진출을 청와대가 도왔다는 증언도 나왔다. 대통령 박근혜 씨가 김 원장으로부터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청년의사 崔 성형외과 원장은 전문의 아니다

이어서 청년의사 보도. 의료 전문 보도 매체인 청년의사에 따르면 청와대의 특혜를 받은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김 원장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일반의로, 해당 병원도 성형외과 의원이 아닌 일반 의원으로 개설신고 돼 있다. 또한 김 원장이 서울대병원 외래 교수로 위촉되는 과정에서도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은 대통령 박근혜 씨의 주치의를 맡았다가 서울대병원장으로 부임했다.

한국일보 崔 성형외과 원장, 의료사고 전력

이어서 한국일보 보도. 김원장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의료사고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김 원장은 2001년 개그우먼 이모씨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해가 엇갈리게 됐다. 그러자 김원장 부부는 개그우먼 이모씨의 진료기록을 언론에 공개하고 이씨가 자신들을 협박했다는 허위사실도 퍼뜨렸다. 이로 인해 김원장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벌금과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03년 김원장 가족은 최순실 일가처럼 개명을 했다. 또한 김원장은 2012년 의료사고를 저질러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박근혜의 창조경제

한겨레 집회 효과로 편의점 양초 판매량 급증

편의점 CU는 지난달 29일부터 11월6일까지 양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주 토요일을 기점으로 서울 지역의 집회 참여 인원 규모가 20여 만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울과 전남 지역의 양초 매출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울산과 대구지역도 50% 가까이 양초 판매량이 늘었다. 양초와 함께 쓰이는 종이컵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증가했다.

오·늘·을·읽·는·책

68혁명, 세계를 뒤흔든 상상력

잉그리트 길혀 홀타이. 창비. 2009

오늘의 칼럼

경향신문 "안전, 자유, 행복을 위한 헌정질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칼럼 "안전, 자유, 행복을 위한 헌정질서"가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이다.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메르스, 지진, 북핵 등 안전과 관련한 여러 현안에서 박근혜 정권은 내내 무능했다. 때론 안전에 관심조차 없는 태도로 일관하기도 했다. 국가와 국가지도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차라리 없는 게 훨씬 더 안전해 보이는 경우도 많았다. 대통령과 정부만 멀쩡했어도 겪지 않았을 희생이 반복되었다. 그런데도 우리의 안전을 위해 박근혜의 임기를 보장해주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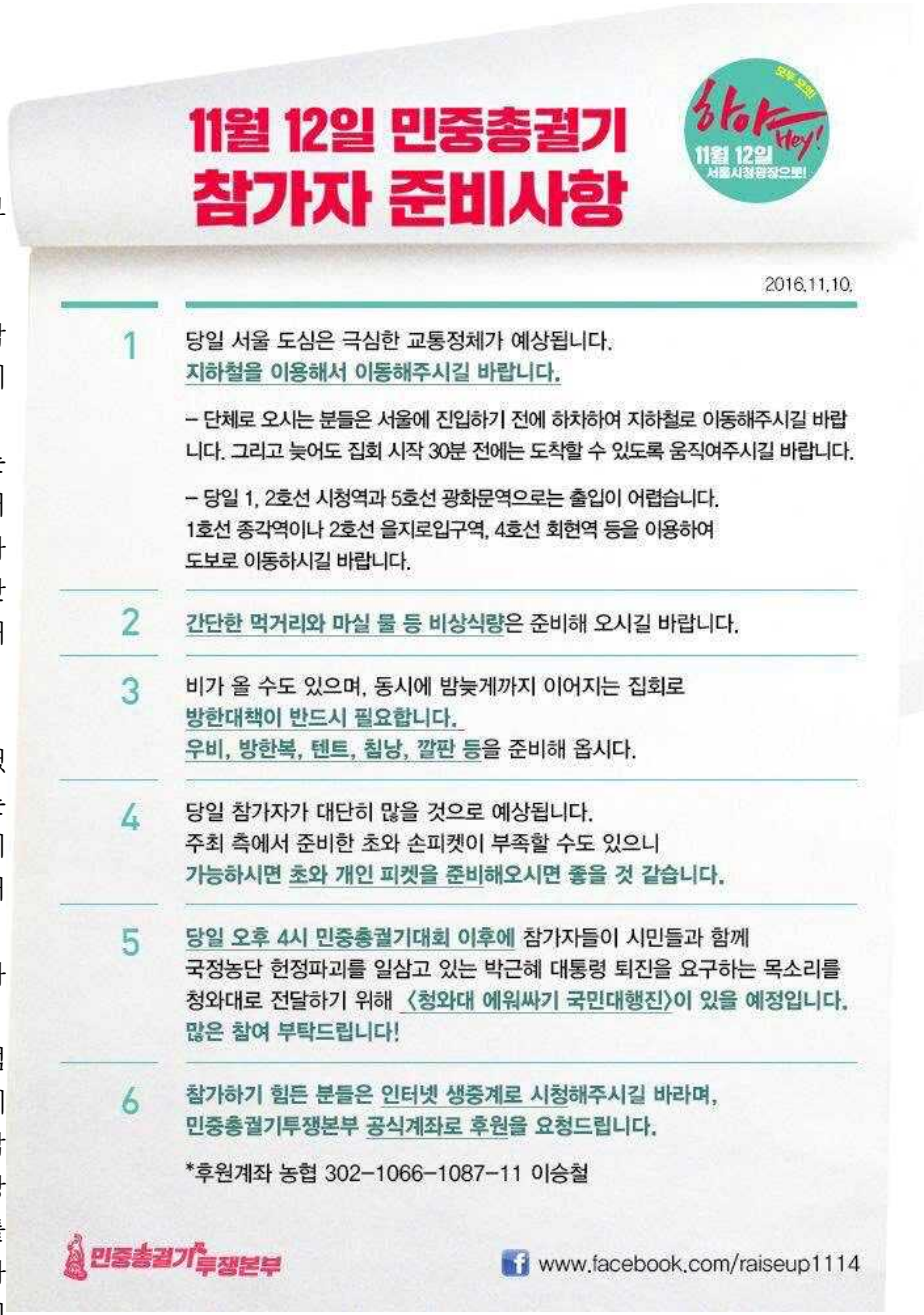
자유는 극도로 위축되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모두 후퇴했다. 1987년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조차 확립하지 못했다. 검찰과 경찰의 힘은 지나치게 커졌다. 온갖 종류의 블랙리스트가 떠돌고, 권력에 충성하지 않으면 대기업마저 좌파로 몰아버린다.

행복은 또 어떤가. 작가 조세희의 말처럼 지금 행복한 사람은 악당 아니면 바보밖에 없는 것 같다. 세계에서 가장 적은 시간밖에 못 자고, 가장 긴 시간 일하며, 가장 늙은 나이까지 일해야 하는 나라, 자살률 1위에 출산율 꼴찌라는 지표는 우리가 가장 살기 어려운 상황, 곧 가장 행복하지 못한 지경에 내몰려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모든 게 꼭 박근혜 탓만은 아니다. 그러나 남은 1년4개월을 부패하고 무능하며 국가운영의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박근혜 일당에게 국정을 맡겨둘 정도로 우리의 형편이 여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게 아니라도 헌법과 법률을 일상적으로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박근혜를 당장 쫓아내야 한다.

가난했고, 국가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1960년의 대한민국은 이승만 퇴진 이후, 아무런 불상사 없이 새로운 공화국을 출범시켰다. 56년 전에도 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야말로 뻔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광장의 요구는 간명하다. 퇴진이든 탄핵이든, 당장 그 자리에서 쫓아내자는 거다. 대선은 그다음이다."



ⓕ 김용민 페이스북 코멘트

역설적이긴 한데 모든 기득권 체제 및 체계를 흔들고 싶어 하는 민심을 트럼프가 흡수해갔다고 봅니다.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였다면 트럼프는 그냥 또라이 출신 최초의 대통령 후보로 그 의미를 다했겠지요. 천민자본주의의 온상이 된 미국의 대안을 제시 못한 힐러리의 패배입니다. 어쨌든 공화당 후보의 승리니 반색할지 주목됩니다. 새누리당 말입니다. 허경영을 영입하길 빕니다. 기득권 엘리트 정치를 해체한 미국에는 지금 허경영 대통령이 들어선 꼴입니다. 2차 세계대전과 함께 시작된 '팍스 아메리카나'도 종식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에 올인해 군사주권까지 안겨준 한국의 보수 정치세력(보수적 야당까지)의 몰락을 예견합니다. 외교 국방에 관한한 철학과 비전이 전무한 박근혜의 하야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